

KIA 마운드 재건 퍼즐, 임기영이 풀어야



임기영

T 타이거즈 전망대

재정비를 마친 임기영이 마운드 정상화의 초석이 될까?
KIA 타이거즈의 임기영이 31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지난 6월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해 5경기에서 2승 1홀드를 기록했던 임기영은 6월 23일 선발로 복귀한 뒤 4경기를 소화했다.

하지만 선발로 나선 4경기에서 17.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친 임기영은 7.64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를 기록했다.

가장 최근 등판인 19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도 3.1이닝 5실점의 부진했다. 결국 벤치는 한 차례 2군 등판을 소화하며, 호흡을 가다듬게 하는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기로 했다.

임기영은 지난 25일 두산과의 퓨처스리그 경기에서 나와 재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6이닝 7피안타(1피홈런) 7탈삼진 2실점을 기록한 임기영은 예정대로 31일 1군에 합류해 롯데전 선발로 나서게 됐다.

앞선 부진을 털어야 하는 임기영은 위기의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첫 출발점이기도 하다. KIA는 지난주 한화 이글스-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6연전에서 1승 5패의 처참한 성적표를 들고 돌아왔다. 5위를 목표로 떠났던 원정길이었지만 KIA는 삼성에 싹쓸이 3연패를 당하며 7위로 내려앉았다. 반면 마운드가 탄탄해진 삼성은 5위로 치고 올랐다.

이번 주중 롯데·두산과 홈에서 5연전

임기영, 올 시즌 부진에 맞은 2군행

퓨처스리그서 전의 다듬고 오늘 선발

기량 회복... 변칙 마운드 해법 키맨으로

■KBO중간순위 (30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두산	99	65	0	34	0.657	0.0
2	SK	98	56	1	41	0.577	8.0
3	한화	101	57	0	44	0.564	9.0
4	LG	102	53	1	48	0.525	13.0
5	삼성	102	48	2	52	0.480	17.5
6	넥센	104	49	0	55	0.471	18.5
7	KIA	97	44	0	53	0.454	20.0
8	롯데	98	43	2	53	0.448	20.5
9	KT	99	42	2	55	0.433	22.0
10	NC	102	40	0	62	0.392	26.5

KIA는 악몽의 6연전에서 임기영이 부진으로 빠진 데다 핵터까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두 경기를 임시 선발로 치렀다. 팻딘이 사실상 두 경기를 모두 책임졌다.

임기영의 공백으로 황인준이 임시 선발로 나선 25일 경기에서 팻딘은 팀의 두 번째 투수로 나와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으면서 11-3 승리를 지휘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핵터의 이탈로 지난 29일 4일 만에 다시 선발로 등장한 팻딘은 이번에는 1-13 경기의 패전투수가 됐다.

4일 만의 등판에서 5이닝을 1실점으로 잘 막아냈던 팻딘은 6회 최영진에게 스리런을 내줬다. 악조건 속에서도 팻딘이 6회까지 버텼지만, 고졸 투키인 삼성 양창섭의 먹이감이 된 베테랑 야수들은 무기력한 모습으로 3승째를 헌납했다.

선발진의 균열 속 벤치의 '변칙 운영'에 KIA 마운드는 위기를 맞았다. 선발진 예측이 불가능해지면서 유일하게 제 몫을 해주던 불펜까지 과부하가 걸렸다. '우승 멤버'라는 호칭이 무색한 무던 장과 허술한 방패의 야수들까지 투수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8월 16일 아시안게임 휴식기까지 순위 싸움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KIA는 마운드 붕괴 위기를 맞았다. 임기영을 시작으로 마운드의 꼬인 실태를 풀어야 한다.

한편 KBO리그는 주중 3연전 이후 하루 휴식을 취한 뒤 2연전 일정에 돌입한다. KIA는 롯데와 주중 3연전에 이어 4·5일 선두 두산 베어스와 역시 안방에서 주말 2연전을 갖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구자철, 은퇴 시사?

“獨 리그 집중하고파... 축구협과 미래 논의 중”

구자철(29)이 현 소속팀인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아우쿠스 부르크와 재계약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가대표 은퇴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자철은 29일(현지시간) 독일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아우쿠스 부르크와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다. 아우쿠스부르크는 나에게 특별한 팀”이라고 말했다.

K리그 제주 유나이티드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구자철은 2011년 볼프스부르크 유니폼을 입고 독일에 진출했다.

2012년 임대로 아우쿠스부르크와 인연을 맺었고, 2014~2015년 마인츠를 거쳐 아우쿠스부르크로 이적해 활약하고 있다. 지난해 재계약해 현재 계약 기간은 내년 6월까지다.

아우쿠스부르크와 새로운 미래를 그리며 구자철이 고민하는 건 국가대표 은퇴다.

2008년부터 A매치 70경기에 뛰며 19골을 남긴 그는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대표팀 마지막 경기라 생각하고 뛰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구자철은 “10년간 대표팀에서 뛰며 항상 모든 걸 쏟아 부었다. 8년은 독일과 한국을 오가야 했다”면서 “자주 다쳤고, 큰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갖고 있었다. 때로는 어느 한쪽에도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내 목표는 개인적으로나 팀에서나 지난 시즌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분데스리가에 집중한다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며 국가대표 은퇴 쪽에 무게를 실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는 “협화와 미래를 논의하고 있다. 내 의견을 얘기했고, 함께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여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음을 전했다.

/연합뉴스

루니, 유혈 데뷔 골

美 이적 4게임만에... 코뼈 골절·5바늘 꿰매

말 그대로 눈물겨운 데뷔골이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떠나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등지를 옮긴 ‘전직 맨유 골잡이’ 웨인 루니(DC 유나이티드·사진)가 마침내 데뷔골을 쏘았다.

하지만 경기 막판 코뼈 골절과 함께 눈 부위를 5바늘이나 꿰매는 시련도 함께 겪었다.

지난 6월 에버턴과 결별하고 MLS행을 결심한 루니는 DC 유나이티드와 3년 6개월 계약을 마치고 미국 무대를 처음 밟았다.

지난 15일 밴쿠버 화이트호스에서 교체 출전에 도움을 기록한 루니는 이후 애틀랜타 유나이티드FC와 뉴욕 레드볼스를 상대로 골 집무를 지켰다.

이런 가운데 루니는 29일 콜로라도 래피즈와 홈경기에서 전반 33분 루시아노 아코스타의 침투패스를 받아 골지역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쏘으면서 MLS 진출 4경기 만에 마수결이 득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무더위 가르며 평화를 향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카누 용선 남북단일팀 북측선수들이 30일 오후 충주시 탄금호 조정경기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G축구 금메달 가는 길 지옥의 4연전

내달 12일부터 9일간 바레인·UAE·말레이시아·키르기스스탄과 조별리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9일 동안 4경기를 치르는 ‘지옥 일정’을 소화한다.

대한축구협회가 30일 발표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경기 일정 따르면,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은 다음달 12일 오후 6시(한국시간) 인도네시아 자와바랏 잘라 하루 팻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조별리그 E조 1차전을 치른다.

이후 이틀간 휴식을 취한 뒤 15일 오후 9시 강호 아랍에미리트와 2차전을 소화한다. 이날 경기 승자가 사실상 E조 1위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기 흐름이 예상된다.

혈투를 치른 대표팀은 이후 단 하루를 쉬 뒤 17일 오후 9시 말레이시아와 3차전을 치른다. 그리고 이를 휴식 후 키르기스스탄과 마지막 경기를 한다.

무더운 날씨 속에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대표팀은 체력 안배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손흥민(토트넘)은 다음달 13일, 황희찬(잡츠부르크)과 이승우(베로나)는 각각 다음달 10일, 8일에 합류하게 돼 초반 경기 출전이 힘들다. 남은 선수로 힘든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김학범 감독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6강전은 23일 혹은 24일에 열린다. 조별리그를 마친 뒤 3

~4일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

16강 티켓은 각조 1·2위 팀에게 주어지며 각조 3위 팀 중 순위가 높은 4팀이 16강에 오른다.

한국 대표팀은 반드시 조 1위를 차지해야 한다. 조별리그를 2-3위로 통과할 경우 다른 조 1위 팀과 16강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순위 결정방식은 승점, 골득실, 다득점 순으로 매기며 두 팀 이상 동률인 경우엔 동률인 팀간 승자승, 골득실, 다득점, 승부차기, 페어플레이 점수, 승자 추첨 순으로 순위를 가른다.

8강전은 27일, 4강전은 29일에 열리고 결승전과 3·4위 결정전은 9월 1일에 진행된다.

대표팀은 이번달 31일 오후 2시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해 본격적인 훈련을 소화할 예정이다.

결전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엔 다음달 8일 입성한다.

한편 여자 축구대표팀은 다음달 16일 대만, 19일 몰디브, 21일 인도네시아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연합뉴스

물꼬 트인 남북 스포츠

창원세계사격선수권 北 선수단 22명 참가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16일간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측 선수단이 22명 참가한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회에 선수 12명, 임원 10명 등 북측 선수단 22명이 참가한다고 발표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북측 사격연맹은 지난 26일 국제사격연맹 온라인 창구에 선수단 22명의 참가 등록을 마쳤으며, 10m 공기권총 등 14개 종목에 참가할 예정이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남자 50m 권총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김성국과 2010년 뮌헨세계사격선수권대회 10m 러닝타겟(혼합) 금메달리스트 조영철도 이번 선수단에 포함된다.

북측 선수 12명은 남자 5명, 여자 7명으로 구성됐다. 이중 절반에 해당하는 6명은 국제대회 출전 경험이 없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40년 전 서울에서 열린 이후 아시아권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다. 이번 대회는 120여 개국에서 4000여 명 선수와 임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선수단의 참가로 어느 대회보다 뜻깊은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좁게는 창원을 알리고 크게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국격을 높이는 대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